

대흥사 흙길 복원 … 테마길 정원 조성



‘비움’ 개울정원
‘머뭇’ 숲속 길정원
‘배움’ 어울림 정원

해남군이 두륜산 대흥사 일원에 테마가 있는 길 정원을 조성한다. 이는 천년고찰 대흥사 산사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명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해남군, 옛길 2.1km 복원 명상·치유 공간으로…2023년까지 120억 투입

해남군이 두륜산 대흥사 일원에 테마가 있는 길 정원을 조성한다. 현재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흙길로 복원한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두륜산권역 길 정원은 '명상과 치유 그리고 옛길 복원'을 기본 방향으로 천년고찰 대흥사 산사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길정원과 개울정원, 숲속 길정원, 어울림 정원 등 명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현재 아스콘 포장된 2.1km 구간의 대흥사 숲길을 보행자 전용의 산사길(옛 흙길)로 복원하고 방문객들이 다양한 수종이 식재된 정원을 마음껏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길 정원을 조성한다.

개울정원은 대흥사 계곡의 개울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비우는 '비움의 길'로 조성된다.

수변 휴식공간을 비롯해 산책로, 소원의 연못, 약속의 다리 등이 공간을 구성한다.

머무는 길로 조성되는 숲속 길정원은 피톤치드가득한 산나무 숲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치유의 공간으로, 어울림 정원은 사찰체험 등 관광 이벤트나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흥사권역 길정원 조성사업은 해남군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쉼과 재미'가 있는 테마정원(휴·편 밸리)'을 조성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두륜산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

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천년고찰이다.

국보 308호 북미륵암 마애좌불을 비롯해 천년수, 일지암, 남미륵암 등 역사 유적과 두륜산케이블카, 두륜 미로파크, 웰빙 음식촌 등이 밀집한 해남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다.

특히 대흥사까지 오르는 십리 숲길은 각양각색의 난대림이 터널을 이루고, 대흥팔경 중 1경으로 꼽히는 구곡유수(九曲流水)는 아홉개 계곡과 아홉개 다리를 지나 흐르는 계곡물을 뜻하는 것으로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명허관 해남군수는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남해안권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올 벼 농작물보험 가입률 98% '전남 1위'

영광군은 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재배대상면적 9242ha 중 9019ha로 가입률 98%를 기록, 전남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 평균 가입률 74%보다 무려 24% 높은 수치로, 2017년부터 전남지역 가입률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군비 10%를 추가 지원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수확기 무렵 태풍(타파, 링링, 미탁) 등 각종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재해 보험금을 2614농가에 11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작물별 재해보험 가입 기간에 맞춰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 송이도’ 가기 편해졌네…400t급 여객선 취항

7~8월 하루 2회 한시운항

‘가고 싶은 섬’이지만 ‘가기 힘든 섬’이었던 영광 송이도를 올 여름 피서철에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됐다. 7~8월 한시적으로 400t급 대형 여객선으로 뱃길을 열기 때문이다.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객선사 (유)해진해운이 영광군 염산 향화도-송이도 노선에 400t급 대형여객선인 ‘드림아일랜드호’〈사진〉을 투입해 7~8월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항한다.

‘드림아일랜드호’는 여객인원 300명, 차량 30대를 수송할 수 있다. 운항 시간은 7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 오후 2시30분 하루 2회 향화도에서 출발해 송이도까지 왕복 운항한다.

영광 송이도는 소나무가 많고 사람의 귀를 달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나무를 병풍 삼아 몽돌(조약돌) 해변을 걸으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섬이다.

섬 입구에서 마을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길게 송이도의 명물 몽돌해수욕장이 나타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다. 섬 중앙부(면적 0.7ha)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왕소사나무 군락지도 있다. 풀등 체험과 낚시, 가족 트레킹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섬이다. 이 곳에서는 꽃게, 민어, 맛조개, 백합 등을 맛볼 수 있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뱃길을 여는데 적극 노력해준 영광군과 해진해운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고 정원 초과로 발길을 돌렸던 관광객들이 올 여름에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송이도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 ICT 기반 의료·건강 관리서비스 도입

신안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ICT 기반 방문간호 원격협진, 모바일 헬스케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증강현실(AR) 기반 원격 협진 등의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방문간호 원격 협진’은 방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태블릿PC 화면으로 의료기관 전문의와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서비스로 만성질환자 약 5800명에게 제공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활동량계를 지원해 활동량과 체성분·혈압·당뇨 등을 모바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설문조사와 혈액검사 등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선정된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활동량·혈압·혈당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간호사·영양사·운동지도사 등을 보내 생활태도 개선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강현실(AR) 기반 원격 협진’은 전남지역 종합병원과 대학, 해양경찰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섬지역 재난사고 시 환자 대상 AR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와 협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섬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받는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 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 양파·단호박 460t 대만·홍콩 첫 수출

무안군은 최근 양파와 단호박 460t을 대만과 홍콩에 수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안 농산물의 대만·홍콩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대만으로 양파 360t을, 하늘과땅농업회사법인이 홍콩으로 단호박 100t을 각각 수출했다. 판매액은 양파 2억원, 단호박 1억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6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농협과 수출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이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농협, 영농법인, 수출업체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출전망단지 등을 추가로 육성하는 등 판로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 조 주택 설 계 · 시 공 전 문 기 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